1위 ABC 공인 유료·발행부수 4년 연속 1위

스포츠동아

2021년 10월 13일 수요일
www.sportsdonga.com

서바이벌게임을 소재로 한 디지털 콘텐츠 '파이트 클럽'과 '공범'(위부터)이 최근 유튜브로 잇따라 공개돼 화제를 모으고 있다. 사진출처 | 유튜브 영상 캡처

1억 상금 놓고 서바이벌 게임 예능판 '오징어게임' 화제 폭발

'파이트클럽' '공범' 등 선보이자마자 조회수 쾅!
유사 콘텐츠 제작 봇물 속 폭력·모방성 우려도

'거액의 상금을 내걸고 참가자들이 목숨을 건 치열한 경쟁 끝에 최후의 1인을 가려낸다.'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오징어게임'의 줄거리이자 최근 잇따라 제작되고 있는 서바이벌게임 관련 디지털 콘텐츠의 콘셉트이다. '오징어게임'의 인기가 디지털 무대로까지 옮아 붙어 '파이트 클럽' '공범' 등이 폭발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파이트 클럽'은 종합격투기단체 로드FC와 콘텐츠 제작사 3Y코퍼레이션이 합작해 유튜브 채널 '코리안 좀비'와 카카오TV로 선보이고 있다. 총 상금 1억1000만원을 둘러싸고 14명의 참가자가 치열한 눈치싸움과 격투시합을 벌이는 영상이 최대 240만뷰를 넘기며 12일 '인기 급상승 동영상' 1위에 올랐다. 설영호, 조준 등 참가자들도 인기를 모으고 있다.

유튜브 계정 '꽈뚜룹'이 CJ ENM의 다이아 티비와 함께 공개 중인 '공범'도 마피아, 공범, 시민 등 각자 정체를 숨긴 10명의 참가자가 1억원의 상금을 놓고 서로 속고 속이는 과정을 스릴러 드라마처럼 담아낸다. 20년 경력의 강력반 형사 김수환, 카이스트 출신 방송인 오현민 등 참가자 면면도 화려하다. 공개 4일 만에 212만뷰로 가파르게 상승 중이다.

카카오TV의 '생존남녀:갈라진 세상'은 각 10명의 남녀가 극한의 환경에서 열흘간 생존해 1억원을 얻는 포맷이다. 참가자 지원을 거쳐 11월7일부터 촬영할 예정이다.

각 콘텐츠는 폭력성·모방성 등 우려도 자아낸다. 12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관계자는 "유튜브 콘텐츠는 현행 방송법상 '방송'으로 분류되지 않아 방송심의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카카오TV는 '비디오물'로 분류돼 영상물등급위원회(영등위) 심의를 받지만 이마저도 유료 콘텐츠에 한정돼 있다.

하재근 대중문화 평론가는 "기존 방송프로그램처럼 디지털 콘텐츠도 이용자들의 비판과 견제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카카오TV 관계자는 "현재 관련 콘텐츠를 영등위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자체 심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유지혜 기자 yjh0304@donga.com

12일 열린 월드컵 최종예선 '대한민국-이란'전 경기 기사는 신문제작 시간 상 싣지 못했습니다. 경기 결과 및 관련 기사는 sportsdonga.com을 참조하세요.

"올 '외국인 방망이 장사'는 망쳤고…내년 대비 일찍 스카우트 나서자"

아니, 벌써?

'전에 없는 흉작이다.' 올 시즌 KBO리그 구단들 중 외국인타자 덕을 본 팀은 거의 없다. SSG 제이미 로맥, 전 키움 데이비드 프레이타스, 전 한화 라이온 힐리, KIA 프레스턴 터커, LG 저스틴 보어, 전 KT 조일로 알몬테(왼쪽부터 시계방향) 등은 모두 부진한 성적을 냈다. 스포츠동아DB

페르난데스·피렐라·마차도 외 사실상 흉작
시즌 중 대체선수 구해봤지만 큰 재미 못 봐
상주 외국인 스카우트들 이미 물밑경쟁 돌입
"내년 지명도 있는 외국인 타자 온다" 소문도

'외국인선수는 전력의 절반을 차지한다!' KBO리그에서 통용되는 말이다.

잘 뽑은 외국인타자 한 명의 존재감으로 타선 전체가 시너지를 얻는 사례는 흔히 찾아볼 수 있다. 하지만 2021시즌 KBO리그에선 이런 풍경을 찾아볼 수 없다. 효자 외국인타자가 실종됐다. 자연스레 2022시즌 이후를 준비하는 외인 스카우트들의 밑그림은 벌써부터 분주하다.

●구관이 명관? 고개 숙인 로맥-터커

11일까지 규정타석 3할타자는 14명이다. 구단별로 1명을 조금 넘는 수준인데, 이 중 외국인타자는 호세 미구엘 페르난데스(두산 베어스·0.317)뿐이다. 외인 타율 2위 호세 피렐라(삼성 라이온즈·0.291)와 3위 딕슨 마차도(롯데 자이언츠·0.285) 정도를 제외하면 순위표에서 이름을 찾아보기 힘들다.

오히려 아래쪽부터 올라갈 때 외국인타자의 이름을 더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제이미 로맥(SSG 랜더스·0.229)은 규정타석 타자 54명 중 타율 53위다. 몇 계단 위인 48위에는 프레스턴 터커(KIA 타이거즈·0.238)가 있다. 로맥은 5년차, 터커는 3년차 '구관'인데 올 시즌 유달리 힘을 못 쓰고 있다. 평균자책점(ERA) 상위 10명 중 6명이 외국인투수로 짜인 마운드와는 판이하다.

지난해 멜 로하스 주니어(당시 KT 위즈)가 타격 4관왕을 휩쓸며 시즌 최우수선수(MVP)에 선정되고, 로베르토 라모스(당시 LG 트윈스)가 구단 역사상 가장 많은 38홈런을 때려낸 것과 대비되는 풍경이다. 수도권 A팀 타격코치는 "확실히 올 시즌에는 리그를 폭격하는 외국인타자가 없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물밑경쟁, 발 빠른 팀이 2022시즌 웃는다!

교체효과도 미미하다. 키움 히어로즈가 데이비드 프레이타스를 내보낸 것을 시작으로 라이온 힐리(전 한화 이글스), 조일로 알몬테(전 KT), 라모스 등이 짐을 쌌다. 하지만 이들의 대체선수 중 눈에 띄는 성적을 거두는 이는 제러드 호잉(KT)뿐. 저스틴 보어(LG), 윌 크레익(키움) 등은 두드러지지 않는다. 수도권 B팀 관계자는 "지난해에는 코로나19 여파로 마이너리그가 열리지 않았다. 이 영향이 없진 않겠지만, 모든 것을 이 탓으로 돌리기도 어렵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선 성공확률이 높은 쪽보다 실패확률이 낮은 쪽으로 안정을 추구하는 분위기가 외인영입시장에 형성돼있다는 시선도 있다.

올 시즌 선두권, 중위권별로 치열한 순위싸움이 펼쳐지는 데 외국인타자들의 동반부진도 영향을 끼쳤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자연히 내년 이후 치고 나가기 위해선 좋은 타자를 수급하는 게 우선이다. 10개 구단 대부분은 상주 외국인 스카우트를 배치한다. KBO리그에 올 수 있는 풀은 한정적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움직이는 팀이 유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올 시즌 후 지명도 있는 외국인타자가 KBO리그를 밟을 것이란 소문도 흘러나오고 있다.

최익래 기자 ing17@donga.com

CJ CHEILJEDANG

속편하게 양배추
믿고먹는
CJ제일제당

저온박막농축기술로 맛과 향이 깔끔한
CJ 한뿌리 양배추&브로콜리 골드

• 식품유형 : 과채음료 • 원산지 : 양배추착즙농축액(양배추:국산), 사과농축액(사과:국산), 브로콜리농축액(브로콜리:국산), 산사나무열매농축액, 매실농축액

01 제주산 양배추와 100% 국내산 원료만을 사용합니다.
CJ제일제당 한뿌리 양배추&브로콜리 골드는 국내산 100% 원료만을 사용했으며, 자연의 해풍을 받고 자란 제주산 양배추만을 사용하여 더욱 맛이 좋고 안심하며 드실 수 있습니다.

02 CJ 저온박막농축기술을 건강즙에 적용하여 양배추만의 비타민U 함유량을 높였습니다.
저온에서 열의 접촉은 최소화하며 농축하는 기술을 통해, 양배추 특유의 비린 맛은 없애고 편안한 속에 도움이 되는 비타민U를 최대한 살렸습니다.

03 양배추와 함께 속을 위한 브로콜리, 산사나무 열매를 담았습니다.
예로부터 속을 위한 재료로 널리 사용되었던 브로콜리, 산사나무열매를 함께 배합하여 CJ연구소만의 노하우를 더했습니다.

04 국내산 사과와 매실로 양배추의 맛을 잡았습니다.
국내산 사과와 매실로 최고의 배합을 찾아내어 맛과 향이 매우 깔끔하고 먹어보면 다릅니다.

특별이벤트 ▶ 금액대별 푸짐한 사은품 증정 (15만원 / 30만원 / 50만원 / 100만원)

CJ제일제당 건강카운셀러 무료상담 및 주문 080-091-9988